

## 메시지 2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고  
복음의 신약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이 땅에서의 그분의 뛰어난 움직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기 위해 활력화됨

성경: 엡 1:19, 3:7, 20-21, 빌 2:13, 골 1:29, 롬 15:16

- I.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엡. 3:20-21:
- A. 이 능력은 1 장 19 절에 있는 능력이다. 우리의 속 존재 안에서 교회를 위해 영적인 일들을 성취하는 것은 그 능력이다.<sup>1</sup>
  - B. 에베소서 3 장 20 절에 있는 ‘운행하다’ 라는 말은 이 능력의 내적 활력화를 가리킨다.
  - C. 이 능력이 운행하는 비결은 우리가 필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1. 우리는 모두 우리 속에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이 능력이 실지로 운행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운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필사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냉담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진지하고 필사적이라면, 속에 있는 뭔가가 우리를 활력화할 것이지만, 우리가 냉담하다면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은 운행하지 않을 것이다.
    - 2.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동역이 필요하시다. 우리가 그분과 동역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 3. 우리는 냉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진할 수 없다는 깊은 느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여겨야 한다. 우리가 필사적이게 된다면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활력화하고 하늘에서 오는 무엇인가가 우리 속으로 계속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럴 때에는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있을 것이다 - 엡 3:21.
- II.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 빌 2:12 하-13.
- A. 빌립보서 2 장 13 절에 있는 역사하신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힘을 준다고도 번역할 수 있다.<sup>2</sup>
    - 1. 이 말은 외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동력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 2. 넘치는 공급을 지니신 그 영광,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sup>3</sup>

<sup>1</sup> 위트니스 리 전집, 1970 년, 2 권,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두 기도, 3 장

<sup>2</sup>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35 장

<sup>3</sup> 위트니스 리 전집, 1983 년, 1 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함, 8 장

3.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sup>4</sup>
- B. 하나님은 조용하고 비활동적인 방법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활기를 주고 계신다 - 빌 2:13.<sup>5</sup>
1. 신성한 요소는 매우 활동적이다. 그것은 활력을 주고 있고, 역사하며, 유기적이다.
  2. 일단 신성한 본성이 함께 있는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 속에 활력을 공급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서 활력을 공급하는 신성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성한 요소 안에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 딤후 3:5, 고후 4:16.
  3. 하나님은 정지해 있거나 수동적이거나 게으른 분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역사는 그분이 우리 안에 힘을 주시는 것이다 - 빌 2:13.<sup>6</sup>
  4. 우리는 이렇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활력화하는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활기찬 자녀들이다 - 요 1:12-13.
- III.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였습니다” - 롬 15:16.
- A. 복음에 관한 가장 높은 빛 안에서, 신약은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신약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 벰전 2:5, 9.<sup>7</sup>
- B. 로마서 15 장 16 절에서 헬라어 ‘제사장’이라는 명사는 수고하고, 분투하고, 활력이 넘치는 제사장을 의미한다.
1. 우리는 지위나 이름만이 아닌 실질적인 신약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
  2. 우리는 분투하고 매우 활력적으로 일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탄의 목표가 복음의 확산을 좌절시키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 C.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활력적인 제사장들로서 구원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매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 롬 15:16, 벰전 2:5.<sup>8</sup>
1.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상관없이 그것을 할 것이다.
  2. 주부인 한 자매를 이것의 예로 들 수 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너무나 지쳤으니 스스로 알아서 챙기라고 말할 수 없다. 그녀는 어떻게 느끼든지 자신의 매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주부와 어머니로서 자신의 매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활력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활력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sup>4</sup>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35 장

<sup>5</sup> 위트니스 리 전집, 1989 년, 2 권, 날마다 새로워짐, 2 장

<sup>6</sup>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12 장

<sup>7</sup> 위트니스 리 전집, 1991-1992 년, 1 권, 장로훈련, 11 권: 장로 직분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3), 8 장

<sup>8</sup> 위트니스 리 전집, 1989 년, 4 권, 주의 회복의 오늘날의 전진, 10 장

4. 우리는 선택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로 임명되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루어야 할 제사장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사장의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활력화 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

D. 로마서 15 장 16 절에서 바울은 그가 자신에게 활력을 주고 있었다고 말한다.<sup>9</sup>

1. 자신에게 활력을 주는 것은 자신의 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자신을 소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그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을 소모하였다.
2. 우리가 수고하고 분투하고 소모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 골 1:29.

IV.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사실상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활력을 주시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활력을 얻게 하심으로써,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와 그분의 증가에 관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sup>10</sup>

- A. 우리가 반드시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활, 매일의 행함, 학업, 직장, 사업은 반드시 오늘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놀랍고도 뛰어난 움직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 B.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날의 이기는 이들 중 하나가 되며, 주님의 현재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현재의 필요를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이기는 이들 안에서 움직이시며 활력을 주시는 그분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과 생활과 오늘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날의 역사를 써야 한다! 우리는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로서 행군해야 한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우리는 활력적이어야 한다! 살아 있어야 한다! 활동적이어야 한다!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필사적이어야 할 필요성

[에베소서 3 장 20 절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라고 말한다. 이 능력은 1 장 19 절에 있는 능력이다. 우리의 속 존재 안에서 교회를 위해 영적인 일들을 성취하는 것은 그 능력이다. 이 절에 있는 ‘운행하다’ 라는 말은 이 능력의 내적 활력화를 가리킨다. 만일 당신이 주님께 진지하다면, 당신이 필사적이라면, 속에 있는 뭔가가 당신을 활력화할 것이지만, 당신이 냉담하다면 당신 속에 있는 능력은 운행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집회에 무관심하고, 당신에게 열매가 없는 것에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당신 속에 있는 이 능력이 역사하여 당신을 활력화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당신이 주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한다면 당신은 즉시 내적 활력화를 체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sup>9</sup> 위트니스 리 전집, 1991-1992 년, 2 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따른 교회 생활의 실행, 12 장

<sup>10</sup> 여호수아 라이프 스타디, 1 장

있으시지만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대로 운행하실 수 있으실 뿐이다. 이 능력이 얼마나 운행하여 우리를 활력화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필사적인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속에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이 능력이 실지로 운행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운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필사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냉담하기 때문이다. 이 능력이 운행하는 비결은 우리가 필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동역이 필요하시다. 우리가 그분과 동역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흠을 베푸시어, 이제부터 우리가 필사적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냉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진할 수 없다는 깊은 느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여겨야 한다. 우리가 필사적이게 된다면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활력화하고 하늘에서 오는 무엇인가가 우리 속으로 계속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럴 때에는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있을 것이다(21 절). 오늘 교회 안에서 주님께 영광이 많지 않은 것은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 이 능력의 내적 운행, 활력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0년, 2권,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두 기도” 3장)

###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동역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13 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동역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룸을 의미한다. 어떤 자매가 불평하고 있거나 어떤 형제가 따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과 따짐으로부터 그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불평과 따짐으로부터 구원된다.

역사하신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힘을 준다고도 번역할 수 있다. 하나님은 속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따지는 데 매우 강할지 모른다. 만일 이 형제가 따지는 것에서 그의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심이 필요하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 하셨다. 그러나 우리를 불평과 따짐으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셔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평과 따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말씀하셨고 그것은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우리에게 불평하거나 따지지 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내적인 씨름이 있다. 당신은 하나님과 많이 씨름하지 않았는가?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어렵다는 증거이다. 손상됨이 없이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신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씨름하는 생활, 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생활이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공급하는 영이시다. 우리는 거듭하여 1장 19 절에서 바울이 그의 환경들이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통하여 그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영으로부터 공급을 체험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의 사실이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35장)

##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실행함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신약의 계시는 기독교의 실행과 완전히 다르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사람의 사상이 아닌 신성하고 성경적인 계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신성한 계시는 우리의 관념 전체에 혁신을 줄 것이고 우리의 실행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고 그 영에 의해 거듭난 믿는 이들이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져갈 수 있고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예표만을 다루었지만, 신약의 제사장들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어떠함과 그분의 모든 소유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로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 우리는 나가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한다.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그분께 주어졌다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가서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다(마 28:19).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며 그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준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다만 그들 안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삼일 하나님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는 그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주어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나가 우리의 친척과 친구와 급우와 동료와 이웃들을 방문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며, 이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행함과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해야 한다.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구원시킴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봉사, 제사장 직분의 첫 단계이다. 신약의 제사장들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 과거에 제사장들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는 제사장과 복음을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 영적인 이상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임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제사장 직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됨을 볼 필요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 매일의 일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약의 제사장들의 일과 의무이기 때문이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못하게 한다면, 그들은 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일상생활을 잃어버릴 것이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 의미 없게 될 것이다. 신약의 제사장들의 매일의 일과 생활 또한 희생 제물의 실재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활력적인 제사장들로서 구원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매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활력적인 제사장으로서 수고하고 분투하며 제사장 직분의 매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깊은 느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우리는 기쁠 때는 복음을 전하겠지만 기쁘지 않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상관없이 그것을 할 것이다.

이것의 예로서 주부인 한 자매를 생각해 보자. 좋은 주부는 항상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 그녀는 세 명의 자녀가 있을지 모른다. 막내는 유치원생이고, 둘째는 초등학생이고, 첫째는 중학생이다. 매일 아침 그녀는 각 사람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세 아이 모두 서로 다른 특별한 식성을 갖고 있어서 아침 식사로 서로 다른 것들을 좋아한다. 막내는 반숙으로 삶아진 계란을

좋아하고, 둘째는 계란 스크램블을 좋아하고, 첫째는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계란과 똑같이 요리된 계란을 먹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서로 다른 세 가지 방식으로 계란을 요리해야 한다. 아이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그녀는 아이들을 각각 다른 시간에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이것이 어머니와 주부로서 그녀의 의무이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너무나 지쳤으니 스스로 알아서 챙기라고 말할 수 없다. 그녀는 어떻게 느끼든지 자신의 매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녀는 이것이 주부로서 자신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에 상관없이 매일의 의무를 다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깊은 느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된 신약의 제사장 직분이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활력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자녀를 기르기 위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주부와 어머니로서 자신의 매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활력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그러한 식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 로마서 15 장 16 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의 활력적인 제사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활력적인 제사장으로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로 드렸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의 매일의 의무로 받아들였다. 어느 날 우리의 느낌은 매우 높아져 우리는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느낄지 모른다. 이를 후에 우리는 침체되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성도들이 타고난 방식으로 흥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흥분했다가 내일은 침체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부흥되는 것이다. 우리는 제사장의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선택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로 임명되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루어야 할 제사장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사장의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활력화 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첫째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평강의 아들들로 정하셨지만,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을 방문함으로 평강의 아들들을 찾지 않는다(눅 10:1-6). 어떤 사람이 평강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한 번 방문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부가 서로 싸울 때 그 집의 문을 두드릴지 모른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평강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잘못된 시간에 방문한 것이다. 우리가 삼 주 후에 다시 그 집을 방문할 때 그들은 기뻐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영접하고 또한 주님을 받아들일 것이다. 누가복음 10 장에서 주님은 칠십 명을 보내실 때 어린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3 절). 한 번 방문해서 어떤 사람이 평강의 아들인지 이리인지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을 거듭 방문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9년, 4권,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전진,” 10 장)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고 인류 안으로 그리스도를 이끄는 합당한 사람들을 예비하는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라는 세 책에 있는 구약 역사 부분의 주된 두 중점이다. 이 두 중점—그리스도를 위하여 땅을 취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실한 조상들을 준비하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룯기까지의 역사의 영이다. 그것들은 구약 역사 가운데 이 부분의 내재적인 의미이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 분명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 책에 관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은 공허할 것이며,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많은 역사가들과 성경 학도들과 성경 교사들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주님의 공훈로 우리가 그러한 이상을 본다면, 구약의 역사서의 이 부분은 신약과 동일한 유익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러한 이상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사실상 구약에서 그분이 택한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분의 증가에 관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그분의 구속된 백성 안에서 활력을 주고 그분으로 자신을 활력화시키는 그들을 소유하기 위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도록 우리를 도울 것이다.

나는 이 세 책의 라이프-스타디를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활과 매일의 행동과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사업이 오늘 이 땅에서의 그분의 기이하고 뛰어난 움직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기 원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날의 이기는 자들이 되고, 주님의 현재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그분의 현재의 필요를 채우려면, 소위 좋은 형제나 자매가 되고 정기적으로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사람들 보기에 어느 정도 완벽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불충분하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런 이기는 자들 안에서 움직이시고 활력을 주시는 그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생명에서, 생활에서,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함 전체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의 역사를 써야 한다. 우리는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로 행진해 나아가야 한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활력화되어야 하고, 살아 있어야 하며, 적극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는 오늘날의 여호수아들과 갈렙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의 롯들이 되어 하나님의 경륜으로 돌이켜 임마누엘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오늘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그리스도를 낳아야 한다. 이것이 이 세 책—여호수아, 사사기, 롯기—의 내재적인 라이프-스타디이다. 이번 라이프-스타디의 결과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고, 오늘날 하나님과 사람 양편의 필요를 채우는 탁월한 그리스도를 이끌어오는 것이어야 한다. (여호수아 라이프 스타디, 1 장)

#### 참고 도서 및 추가로 읽을 말씀:

1. *위트니스 리 전집, 1970년, 2권,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두 기도, 3장*
2.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12, 35장*
3.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1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함, 8장*
4. *위트니스 리 전집, 1989년, 2권, 날마다 새로워짐, 2장*
5. *위트니스 리 전집, 1991-1992년, 1권, 장로훈련, 11권: 장로 직분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3), 8장*
6. *위트니스 리 전집, 1989년, 4권, 주의 회복의 오늘날의 전진, 10장*
7. *위트니스 리 전집, 1991-1992년, 2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따른 교회 생활의 실행, 12장*
8. *여호수아, 사사기, 롯기 라이프 스타디, 1장*